

ALEC SOTH

16 July - 29 August 2009

'이미지 창조자'로서 세상을 기록한다.



Untitled 22, Bogota, chromogenic print, 38.1 x 38.1 cm, 2007

스스로를 '다큐멘터리 사진가(Journalist)'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이미지 창조자(Creator of Documentary)'로 정의하는 미국 사진가 알렉 소스(Alec Soth)의 개인전이 열린다. 매그넘 작가로 유명한 그는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낯선 도시 속 일상의 단면들을 포착해 왔다. 워커 에반스, 로버트 프랭크, 스테판 쇼어, 윌리엄 이글스턴으로 이어지는 미국 사진(American Street Photography)의 계보를 이으며 다큐멘터리 사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작가다.

소스는 2003년 산타페사진상을 수상했고 상파울루비엔날레 휘트니비엔날레에 참여했다. 샌프란 시스코현대미술관 워커아트센터 휘트니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작 <나이아가자>와 <Dog Days, Bogota>를 소개한다. <나이아가라> 시리즈는 그가 2년 이상 폭포 주변에 머물며 찍은 사진이다. 그는 폭포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찾기보다 그곳을 방문하거나 상주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그들의 욕망과 로맨스를 표현했다. <Dog Days, Bogota> 시리즈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의 모습을 담은 작업이다. 작가는 2002년 콜롬비아에서 딸을 입양하며 두 달간 이곳에 머물렀다. 그의 사진에서 현대화된 자본주의 도시와는 사뭇 다른 도시의 풍광을 만날 수 있다.

02)3446-3766



misty, chromogenic print, 76.2 x 61 cm, 2005

art 와